# 광주시, 이번엔 융합녹색산업 육성

## 4년간 4,425억 투자…광·환경·나노 기술 합해 신산업 창출

광주시가 융합녹색산업 육성에 나선다. 광산업, 디지털 정보가전산업, 자동차산업 등 주력산업의 핵심기술과 녹색기술 등을 융합해 새로운 산업으로 키워내면서, 산업구조도 고부가가치형으로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광주시는 10일 국비사업 보고회를 갖고 2011년 신규사업으로 '융합녹색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선정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이후 4년간 모두 4천425억원을 집중투자해 광·디지털·환경·나노 기술 등을 융합해 새로운 차원의 녹색 산업을 육성, 광주 R&D특구에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광주시 또 이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융합녹색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에 대해 비용산출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2월 5억원을 들여 이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10월께 그 용역 성과물을 받아 융합녹색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이 용역 목표를 광기술과 정보기술, 환경기술, 생태기술, 나노기술 등을 융합시켜 차원 높은 지역산업 육성으로 정하고, 주내용으로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구기관 및 시설, 연구인력, 연구성과 공유 및 산업화 체계, 연구지원 체계 등을 담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녹색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펴고 있으며, 앞으로 융합기술이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광주가 가장 먼저 광산업 육성에 나섰던 것처럼 융합녹색산업을 선점하겠다는 취지다"고 말했다.

정부도 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 등 자원을 활용하는 녹색기술과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기술 간 융합을 지향하는 융합녹색기술과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중점기술 육성에 나서고 있다. 2012년까지 녹색기술 부문 R&D 투자를 연간 2조원 수준으로 높여 향후 4년간 모두 6조3천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광주가 융합녹색산업을 선도하면 향후 정부의 폭넓은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열린 광주시 용역과제심의위에서는 이 외에도 '2020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10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3억원)', '극락천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12억1천만원)' 등 17건의 용역과제가 원안의결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우일렉 러 공략** 대우일렉이 지난 9일(현지시각) 모스크바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CIS 신제품 발표회'에서 러시아 딜러들이 '드럼업 II' 세탁기, 말하는 복합 오븐 등을 살펴보고 있다. 〈대우일렉 제공〉

# "區 금고 계약 보류 하겠다"

## 황일봉 남구청장 밝혀

황일봉 광주시 남구청장은 "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선정한 광주은행과의 계약체결을 보류한다"고 10일 밝혔다.

황 청장은 이날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에서 탈락한 농협 측이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광주지법에 '계약체결 당사자로서의 지위확인 및 계약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규정상 오늘까지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금고 선정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청장은 또 "금고지정심의위의 권한은 정해진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으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심의하고 평가하는 것에 있는데, 이번 심의위는 행안부의 유권해석마저 무시한 채 평가항목을 바꾸는 등 명백한 월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이어 "향후 금고선정은 구와 구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캐리어 노조 해고 반발

# 사장실 점거 농성

캐리어㈜ 노조가 9일부터 사측의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 광주공장 내 사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사측은 오는 14일 정리해고 예정자들에 대한 최종 확정 및 통보를 연기하는 게 사태를 해결하는 급선무"라며 "공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정리해고 철회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해고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상경 투쟁 등에 돌입, 대시민 홍보전을 펼쳐왔다. 현재 공장 가동률은 10%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사측은 "구조조정 방침은 회사의 존립을 위해 필요하며 노조와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왔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밀가루 업체는 '전남쌀' 소비 전도사

## 대선·한국제분 쌀 가공라인 증설

밀가루 업체들이 전남산 쌀 전도사로 나섰다. 기존의 쌀 가공공장을 증설하고, 제분공장을 쌀 식품 가공에 활용하는 등 발걸음이 활발해졌다.

한국제분공업협회는 연간 170만 톤의 밀가루를 공급하고 있는 제분업계가 정부의 쌀 가공산업 활성화 정책에 동참, 쌀가공 산업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함평에 국내 최대 규모의 쌀 가공공장을 운영 중인 대선제분㈜가 기존 공장을 3배 정도 증설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가동한 대선제분㈜ 함평공장은 1일 80톤·연간 2만4천톤의 쌀을 제분할 수 있으며, 최첨단 생산라인 3개를 갖추고 있다.

한국제분도 목포 공장을 오는 2011년 당진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설비를 활용해 쌀 가공라인을 일부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J제일제당㈜도 다양한 쌀 가공 제품을 개발하는 등 쌀 가공사업에 본격 진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제분㈜ 등도 당장 쌀 가공공장을 설립하지는 않지만 쌀가루 프리믹스(배합 분말)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동아원㈜과 ㈜삼양밀맥스는 쌀건빵 등 쌀가공 식품과 쌀가루 프리믹스 제품을 이미 생산하고 있다.

제분공업협회 이희상 회장은 "밀보다 딱딱한 쌀은 그 특성상 제분하기 어려운 곡물"이라면서 "국내 제분업계가 보유한 오랜 노하우와 첨단 기술로 다양한 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쌀가루 및 쌀가루 프리믹스 제품을 만들어 쌀 소비촉진 정책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가공용 쌀로 사용되는 쌀을 현재 생산량의 6%에서 2012년까지 10% 늘리기로 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연합뉴스

# 광주서 17일 주식선물 투자 설명회

한국거래소는 주식선물 추가 상장 관련 투자자 설명회를 오는 17일 오후 4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항공, 기아차 등 10개 종목의 주식 선물이 14일 추가로 상장되는 것을 기념해 마련한 것으로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한국거래소는 유명 애널리스트를 초청해 주식 선물의 특징과 주요 제도 설명, 주식 선물 투자 전략 등에 대해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김정원소장은 "호남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주식 선물 설명회로 주식 선물에 관심이 있는 지역 투자자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광산업진흥회 15일 포럼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허영호)는 15일 광주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과 공동으로 '2009 광 융·복합 기술시장동향 워크숍 및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신기술 개발이 절실하다는 입장에서 마련된 것으로, ▲IT융합과 LED조명 보급정책 ▲광융복합 부품소재 ▲LED조명응용기술 등으로 나눠 시장 기술 동향 및 미래 발전 전략 등이 논의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